



## 사망사고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사회』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산업재해·자살·교통사고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여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충남지역 사업장에서는 올해 5.19.에 도로공사 추락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였고, 5.29.에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6.26. 세종시 건설현장 화재로 3명 사망하고 총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대형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7.24부터 「사망사고 예방 100일 대책」을 수립하여 「★ 대전시와 사망사고 예방 MOU 체결 ★ 안전보안관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 안전불량 현장에 이동순찰대 운영, ★ 건설업 본사 기획감독 ★ 시스템 비계 설치유도 ★ 찾아가는 안전순회 교육」등을 추진함으로써 8월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11월말 기준) 7명이 증가한 상황으로 금년 연말까지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청은 향후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올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중지명령을 발부하여 **평균 49일**간 작업을 중단시켰으며, 앞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작업중지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장에서 산재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보다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실례로 올해 관내 폭발사고 발생 사업장의 경우 2017년 영업이익이 약 400억원이었으나,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액이 약 1,200억원에 이르고,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대전지역 택배물류 사업장은 장기간 작업중지로 인하여 그 손해액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며, 기업 이미지 훼손 등 간접손실까지 추산할 경우 그 피해액은 엄청날 것입니다.

사업주 여러분! ‘**근로자의 생명은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은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쓰시는 사업주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장



이명로

드림